

연중 제 18 주 일

기도서 P. 404 A해

제1독서 (이사 55. 1-3절)

제2독서 (로마 8, 35. 37-39절)

복음 (마태 14, 13-21절)

#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예 수

### 안 동 기 신부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가 판을 치던 시대에.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로마가 아닌 베를레헴에 탄생했다. 그것도 이름없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가브리엘 친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예수>라고 알려 주었다. 예수님은 더 자세히 “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이는 구세주요 해방자란 뜻이다. 이 이름은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해방자 예수! 이분은 인간의 해방을 놓고 고심하셨다. 풍요로운 빵도 생각해 보았고, 산천 조복이 떠는 권세도, 눈부신 부귀 영화도 생각해 보았다. 허나 겉세 마니의 결론은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십자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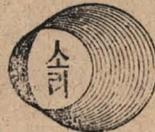
“될지어다”의 결실이었던 아담과 에와가 자기중심적이었음에 비해, “말씀”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성부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간의 해방을 도와 주셨다.

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해방자 예수님은 갈걸을 가지 못하는 앓은뱅이를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형제를 못보는 봉사자를 보도록 하셨다. 형제의 말을 못듣는 커머 거리를 듣도록, 형제에게 말을 못하는 병어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분은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의 해방을 도울 방법을 말씀하시고 몸소 실천하셨다. 그 실패로 죄녀를 둘러싼 군중에게 죄 없는 자 있거든 돌을 던지라고 하셨다. 일곱번씩 일흔번까지 용서하라 하셨다. 착한이에게나 악한이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하느님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베드로의 칼을 거두라고 하셨다. “성부여! 이들은 이들의 하는 것을 모르고 하오니 용서하소서 하고 운명하셨다.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해방자 들이다. 짓눌린 자도, 짓누르는 자도 모두 해방시켜야 할 어려운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 허나 방법은 간단하다. 예수님을 보아라. 여러가지 조건에 구속된 환자들을 치유시키고, 먹여주고, 부활시켜주고, 울 사들의 허위를 고발했다.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하셨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방법이 아니라, 실행이다. 범죄에 대한 보속과, 남에 대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위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며, 한 알의 밀로서 죽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골고타에서 홀로 죽어도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치명자들은 이슬같이 사라졌어도 그 넓은 길이 빛나고 있다. 두꺼비를 잡아 먹는 독사는 영원히 죽는다. 허나 두꺼비는 더 많은 새끼를 낳는다.

「야훼는 우리의 목자! 우리는 아쉬울 것 없느니라.」  
(이리 주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아파아트(我破我投)

— 其三(부정의 씨앗, 가라지)

무덤고 긴 7월, 다시는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7월이 갔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뇌리에, 양심에 남아서 겨울 노릇을 해야 할 7월이었다.

아파아트 사진의 전도가 당국에 의해 밝혀진 날, 야당에서는 「천하의 민심과 국기(國基)를 흔들어 놓은 부정 부패 사진」이라고 못박으며, 검찰수사가 「편파적이며 새로운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사진이 워낙 크다보니 「뇌물의 한계성」이란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고, 사실 「빙산의 일각」을 바라보는 느낌마저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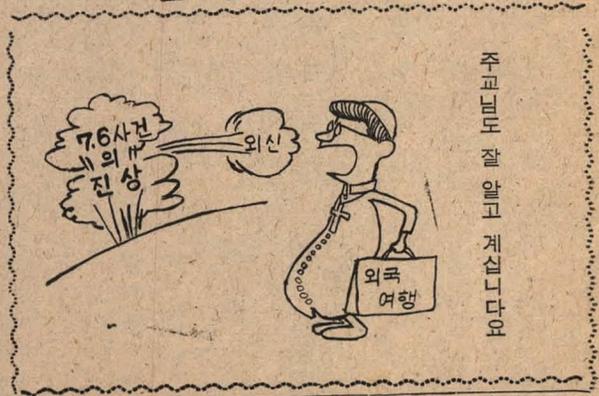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채 가지만 조금 다친 느낌이 들던차, 또 다른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기업공개마저 거부하여 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에 영합한 정책당국의 반국민적 소만」이라는 표현에 실감이 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나쁜 사진이다. 이런 생각들이 커질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총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더욱 안타깝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터진 「가짜 자격증」은 웬말인가? <서정쇄신>이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도 「가짜-부정부패」가 많으니, 한강에 뛰어들 버스 추락사고가 그냥 단순한 사고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버스 사고에도 「편허 발급의 헛점」이 문제가 되었다 한다. 그러니 어떻게 승객이 운전기사만을 믿고 차를 탈 수 있단 말인가? “제 명(命)이 그것 뿐이니, 탄소리 말고 기우(杞憂)는 버리라”고 끝나야 옳은 일일까?

하느님, 밀밭의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은 일입니까? 당신이 불에 태워 버릴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당신의 뜻을 쉽게 못알아듣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참조: 마태오 13, 24-30)

## 숲 정 이 산책



주요년도 잘 알고 계십니다



### 사랑이 깃든 눈빛

박 영 호(안드레아)

사람들의 눈빛은 참으로 다양하게 각자의 품격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밝은 새벽같은 빛으로 항상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이가 있는가 하면, 사랑과 화해의 빛으로 은근히 멧을 풍기는 사람, 또는 불안과 불성실한 빛으로 불쾌한 여운을 남겨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가지 빛깔이 있어서 즐겁게도, 때로는 침울하게도 해주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겸손히 사는 사랑의 빛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없이 다가서는 가파른길을 바라볼때, 우리 생활과 비교해서 고달픈 여정이라고도 이야기들 합니다. 좌절에 지치고 비탄에 빠지기도 하는 험한길을 갈 때,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것인가! 우리 인간들의 소망이 이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하고 밝을 향해 찾고 있던 우리의 불안한 눈을 앞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이웃으로, 내 자신이 사랑이 깃든 눈빛으로 설수 있을가에 대해 적극적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이 주신 소박했던 심성(心性)은 날로 작박해지고, 참된 친구나 동료도 없는, 이웃도 없는 슬픈 세대를 살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소망! 누구에게나 주어진 과제! 우리가 진정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행복한 하루 하루가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 잘 다듬어진 우리의 마음과 따스한 눈길의 마주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겹다리가 되어 잡힌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싹트고 꽃피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걷는 이 험한 길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박했던 심성들은 이슬처럼 반짝이는 새로운 날들에게로 탄생할 것입니다.

(용안 천주교회 사무장)

### 우리의 작은 그리스도에게 보내온 성금

- 합열 상지원(나환자촌) 공소 보수를 위해
- 덕진 순결하신 어머니 pr. 단원들 5,000원
- " 사랑하올 모친 pr. 단원들 4,200원
- 전동 방지거3회(글라린형제회) 회원들 12,300원
- ※ 합열 상지원과 해고된 가톨릭 노동자들을 위한 성금 접수합니다.

안 경 신장개업!

군 산 이태리 안경원

主 흥 도 민 고 (석수)

군산시 중앙로 1가 10

전화 군산 ③3080번

(안과처방 조제 각국수입렌즈 구비)



### 신앙인의 참모습

유 종 소(베드로)

종교의 참뜻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평화요, 둘째는 구원이요, 셋째는 영생을 얻기 위한 일 것입니다. 이같이 종교가 원칙적으로 내세운 세가지 목표는 신앙인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앙인이란 어떠한 종교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철(聖哲)들은 신앙을 일컬어 "인간의 천부적(天賦的)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고, 신앙이 없는 곳에는 암흑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신앙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요, 인간의 희망이며, 우리들 마음의 정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응(感應)이며, 신비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항상 아름다운 심성(心性)을 지니고 고귀한 품성으로 따뜻한 인생을 신앙 자체에서 발견하고, 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신앙인의 자세를 말합니다.

신앙인의 참모습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이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마음에 익혀서 의지로서 다짐을 받고,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참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전교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救援)하는 참모습입니다. 우리 인류는 주님안에 모두 한 형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이 있을 수 없고, 부자와 가난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정신에 일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따뜻한 구원의 사랑은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정의를 살아가는 참모습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만에 하나라도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있다면, 이는 주님의 10계명을 모두하는 중대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비겁하게는 인생을 보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는데 비로소 신앙인의 참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신앙인의 참모습을 갖춘 연후, 과연 천국에 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져 축복받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파티마성당 사도회 부회장)

### ◆ 3년동안 뒷손을 보아드립니다 ◆

가정용목욕탕. 온수. 난방시설 및 수리전문. 보일러판매 본사직영 호남출장소가 전주로 옮겨졌습니다.

###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전주 ③ 4341 군산 ③ 3032 이리 8629

한 동 압 (모이세)



□ 여름밤에 쓴 편지 □

## 공소에 사는 사랑하는 벨라도에게

—철조망에 굶린 배

그간 부모님 밑에서 누에치고 모심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학교에 가는 날에도 일찍 돌아 와서 부모님 도우느라 수고가 많았겠지.

지금쯤은 오뚜개며 살구, 도마도, 참외가 환창이겠다. 학교에 가는 길 옆에는 맛 있는 남의 집 열매들이 너에게 군침을 삼키게 하고, 때로는 주인이 없으면 틈을 타서 슬쩍 하나 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있진 않진 보시고 계시니까, 많은 유혹을 당할 때 마다 십자가에 못박혀 못말라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남의 집 살구나무에 한번이라도 돌을 던져서는 안되겠지. 참외 하나를 노랗게 하기까지 한 농부의 피땀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네가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아버님을 통해서 능히 짐작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유혹을 받아 동네 아이들과 작당하여 참외밭 습격 하였을 때에는, 그 농부의 일년 농사는 끝장이 나는 거란다. 어두운 밤에 노랗게 보이지 않는 참외를 찾느라 제일 포복으로 기기 때문에 엉클이며 새끼 참외를 이겨 버리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 아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내가 구민학교 시절, 해방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꽃밭쟁이 미처 못가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이 있었는데, 참외·도마도·가지를 심었었고 복숭아 나무도 몇주 있었단다. 어느날 유혹에 빠져 동네 아이들과 대어섯이 이 농장을 습격하였던거던. 나는 복숭아 따는 임무를 맡고, 런닝샤스를 벗어 밑을 묶고, 잘쳐진 철조망을 간신히 뚫고 들어가 복숭아를 조심조심 따 넣고 있는데, 땅을 보던 동무가 “온다!” 튀어라! “튀어!” 하지 않았겠니. 철조망을 어떻게 뚫고 나왔는지 숨을 몰아 쉬면서, 복숭아 자루는 그대로 놓치지 않고 지정된 자리에 와서 보니 하나 둘 모였는데, 한 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심장은 어찌 그렇게 뛰니. 자자 따온것을 전부 모아 놓고, 나는 런닝샤스를 털어서 입었는데 왜 그렇게 꺼그럽니.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동무 나중에서 혈레벨레 튀어오지 않겠니.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니. 도망치다가 농사를 짓노라고 일본 구덩이를 파 놓은 곳에, 그것도 모르고 빠지니 가슴까지 올라 오더란다. 간신히 풀을 잡고 올라와서 쉼 오는 길이란다. 우리는 늦게 온 동무와 함께 복숭아·참외·도마도를 맛있게 먹는데, 일본 소년, 와가모도가 나의 삼베 잠뱅이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피 아니냐고 묻지 않겠니. 깜짝 놀라 보니까 야가부터 쓰리 쓰리 하던 배꼽부분이 5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오지 않겠니. 도망치다가 철조망에 틀림없이 찢어진거라 생각했고, 벌을 받아 이제 창차도 나오고 죽는줄 알았는데,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속을 뜯어 문질러 보더니 점토키만 굶었다고 안심하라 하지 않겠니...

이것이 나의 어렸을때의 철모른 범행의 하나이지만, 교리를 배우고, 10여년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신부가 되어 너희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남의 집 열매, 원조 아담과 에와의 지선악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렸을때의 잘못이 그렇게 마음의 가책을 줄 수가 없었다. 지금도 참외를 볼때마다 참외밭 주인이 일년 농사를 걸었다고 농물을 건어내는 모습이 눈에 훤히 난다. 한번의 잘못으로 일생동안 마음아픈일이 없도록 당부 하면서 글을 가름한다. 안녕.

—김 병 열 신부

## 요심이 (262) 김병오



**전주 스타 사진관**  
전화 6094  
급구 견습공 모집  
만 16세~20세 미만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열(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流 온수 온돌 공사**  
(진안, 장계, 대리점)  
진안전화 577번  
장계전화 주간 9번, 야간 40번  
※교우분들께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이십 및 직원채용**  
격변하는 시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경리를 담당하신 분은 세무회계를 떠나서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節稅의 秘訣을 상담코저 李炳植 公認 會計士님을 상담역으로 모셨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아울러 활동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남·여 자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회원 가입안내>**  
세법과 세무 회계상의 처리 및 세무 신고를 할수있는 지침서를 소개합니다.  
(종별)  
•세무회계 종합지상 강좌집 월회비 3,000원  
•최신에듀 통첩집 2,000원  
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는 세경회보 및 세무자료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국세경 협회 전북지부장**  
朴道植(스태파노)  
전주시 전동 2가 138-3  
전화 사 4296 자 9649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식, 보료  
**문화양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숭정이 대금이 70여만원이나 밀렸읍니다. 도와주세요

1. 성령 선행 세미나...28일 <월>-9월 1일 <금>,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 1만원  
※ 선착순으로 40명만 접수함(접수처...가톨릭 센터)
2. 제 2지구 올드레아...오늘 오후 2시, 대야 천주교회에서  
※ 제 2지구(대야, 문율동, 용안, 월명동, 팔마, 함열, 화산) 꾸르실리스타 형제 자매의 빠짐없는 참석바람
3. 마인드 컨트롤...17일 <목>부터, 가톨릭 센터에서, 강사...윤상균(파로)선생  
※ 10일 <목>까지 가톨릭 센터에서 접수함
4. 추기경기 쟁탈 전국 웅변대회...10월 3일 <화>, 서울 명동 문화회관에서  
※ 월고마감...8월 31일(교구 평협에 문의바람), 자격...초·중·고교생  
※ 주제...「교회는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최...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5. 혼인 문제 상담일...7일 <월> 오전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에서
6.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7일 <월> 오후 8시반, 가톨릭 센터에서
7. 농민회 임원 연수회 : 7일 <월>-8일 <화> 장소 : 남원 대강



(중앙)

전화 ①3651  
②3874

주임 신부 서웅복  
보좌 신부 정승영  
보좌 신부 임배석  
사도 회장 회장 이영복

1. 상지회 월례회 : 오전 9시(성당)
2. 프란치스코 3회 : 오후 1시 30분(성당)
3. 사도회 단합대회 : 7일 <월> 오전 8시(성당)
4.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 바랍니다
5. 미사시간 엄수 하세요
6. 다음주 공식미사 전례(13일)  
복사-김옥기, 양쌍수, 해설-장남수

□ 지난주 봉헌금 : 143,775원

(노송동)

전화 ④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1. 애령회 월례회 : 금일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신우회 월례회 : 다음주 저녁미사 후
4. 프란치스코 청장년 모임 : 오늘 10시-오후 5시까지
5. 첫 영성체 교리반 : 매일부터 오전 9시 시작
6. 성가연습 : 매일 저녁 8시부터 많은 참여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69,67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강덕행  
사도 회장 유제상

1. 부모님들의 협조로 하계교리 무사히 마쳤읍니다  
일일교장 선생님 수고 많았읍니다
2. 밀린 봉헌금 납부 바랍니다
3. 신축헌금 미납 되신분 빠른 시일내에 납부 바랍니다
4. 화단 제초 작업(학생회) 수고하셨습니다
5. 미사전에 성사보시기 바랍니다
6. 학생회 임원회의 : 공식미사 후(회의실)

□ 지난주 봉헌금 : 90,955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성우회 후
2.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최재홍 형제역)
3. 학생회 하기 수련회 : 지난 26~29일(3박 4일)  
진안상전에서 신부님, 부제님, 사도회 임원 4명, 부녀회 4명, 학생 43명 무사히 마쳤음.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1주일간 있었음  
학생-100명, 교사-3명 감사합니다
5. 중·고생 특별교리 : 8월 7일~12일,  
매일 오후 3시~5시(교리 경시대회 대비)
6. 신용협동조합 : 오늘 휴무(단합대회 관계로)
7. 1일 교장 : 오늘 노천경 형제님  
다음주일-홍명선 자매님

□ 지난주 봉헌금 : 124,350원 특별헌금 : 29,00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 10시 미사후
2. 첫 영성체식 : 10시 미사(50명)
3. 중·고등 학생·교리교사 : 캠핑 잘 다녀왔어요
4. 신축헌금 (제 9반)  
강병동, 국춘환, 박요셉(각 20,000원), 박복규(7,500원), 엄한구(7,000원), 원기철, 구양래, 김필수(각 25,000원), 이원용(10,000), 장안웅(12,000), 유순배(6,000원)

□ 지난주 봉헌금 : 37,860원

(숭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하기방학 교리안내 : 8월 7일~12일(국민학생 전원)
3. 어머니 성가연습 : 매주 <목> 오후 2시
4. 미수된 봉헌금을 정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2,79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이순성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 저녁미사 후
2. 성화회 : 10시 "
3. 유아세례 : 2시 "
4. 주일학교 하계 특별교리 : 7일~12일(한주간)  
8시-30분 시작 (방학 특별교리책 240원)
5. 성당의자 재작 완료
6. 중·고등 학생 하계 특별교리 : 8월 7일 <월>부터 3일간 오후 5시

□ 지난주 봉헌금 : 133,175원

(파티마)

전화 ③7249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 성모 동소승천 3일 기도회 : 8월 12일~14일 (오후 7시 30분 부터)
- 신청기간 : 8월 6일-10일까지 (사도회 사무실 접수)  
참가비 : 1인당 500원, 대상인원 : 50명 선착순
- 1. 사도회 정기총회 : 10시 미사후(사도회 사무실)  
사도회 임원, 구역장, 전원 참석 바랍니다
- 2. 성가연습 : 동소 승천을 맞이하여 토요일 오후 5시
- 3. 교무금 납입자 : 고태석, 조홍욱, 장준동, 김유순(각 2,000원), 박덕희, 정세창, 조제연(각 10,000원), 오영길(7,000원), 이승규(5,000원)
- 4. 여름 교리학교 : 부모님들의 협력으로 무사히 마쳤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0,095원